

“지역 특색에 맞는 강의 발굴하겠다”

이우옥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장

구도심 위치 고려 강좌 기획 구성 ‘성인놀이터’ 공간 자리매김 목표

“구도심에 위치한 위치 특색에 맞는 강의 발굴 기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단순쇼핑서비스를 뛰어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워라벨 문화 확산과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서다.

이에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도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롯데 광주점 문화센터는 한 학기 평균 350여개의 강좌에 3,500명의 회원이 몰릴 정도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에 롯데 광주점 문화센터의 고품격 강좌의 기획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우옥 문화센터장(41)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센터장의 업무 중 하나는 강사 섭외다. SNS,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며 최근 트렌드와 사회 분위기를 파악해 명사를 접촉·섭외함은 물론 지역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패어, 축제 등 현장을 누비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구도심에 위치한 점포 특색에 나이가 높은 고학력 고령고객의 비율이 타 문화센터에 비해 높은 편이고 동구 계림동,



누문동 재개발계획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있다.

이 센터장은 이런 지리적 특성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강좌를 기획 발굴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높은 나이대와 고학력 수강생들을 위해 철학, 성악 등 수업을, 직장인들을 고려한 요가, 필라테스 교실을 기획했다”며 “최근에는 문화센터의 트렌드도 많이 변화해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 즐길 수 있는 강좌가 수강생들에게 주목 받는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사무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수강생 한명만명과 수업만족도 평가 등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일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다.

롯데 광주점 문화센터의 목표는 지역민들의 문화·여가의 갈증을 채워주고 동시에 편하게 쉬었다갈 수 있는 ‘성인놀이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롯데 광주점 문화센터는 워라벨 강좌와 더불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와 고객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강좌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상무스타치과병원-전기안전공사노조 진료 협약
광주상무스타치과병원은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과 가족들이 광주상무스타치과병원 방문 시 진료비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탄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19나눔캠페인 출범 후 광주에서 7명의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나눔리더로 동참한 7명은 1호 이계상 광주MBC 기자, 2호 노한진 다사랑치과 원장, 3호 이광훈 인하루치과 원장, 4호 정병호 미르치과 원장, 5호 홍성수 상무치과 원장, 6호 전승범 전승범치과 원장, 7호 박종관 현대자동차차부서비스 대표다.

송수연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

‘반려식물 프로젝트’ 교감 통해 현실 극복

광주문화재단 2018지역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생 송수연씨가 최근 ‘2018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회’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과정과 통합리더 과정 종합 심사점수를 합산해 1~2위 특점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3위 특점자에게 30만 원의 상금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을 시상했다. 전국 7개 권역 총 22명의 우수교육생과 권역별 멘토 강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송씨는 ‘반려식물 프로젝트’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프로젝트 기획의도에 대해 “나는 국악을 전공하기 위해 제주에서 광주로 유학 온 자취생이기 때문에 아껴가나 힘들 때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텅 빈 집의 공허함과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우울함이 밀려오던 중 반려식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스스로의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자취생들의 모습을 보고 기획자로서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수상 소감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의 자취생들을 모집해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다. 반려식물을 통해 형성된 ‘We are P’riend(Plant Friend)’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반려식물과 교감한 내용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한 ‘Plant Diary’를 공유하며 또 하나의 기쁨을 누리는 자취생들의 모습을 보고 기획자로서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수상 소감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친정방문 후원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600만원 전달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지난 11일 여수지역 종합복지시설인 미평사회복지관을 방문, 이주여성 가족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정방문 후원금 600만원(세대당 3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5년 2월 체결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 협약’에 따라 8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이주여성 친정방문은 여수발전본부와 미평사회복지관의 사전심사 및 추천에 의해 이주여성 2가족이 선발됐다. 세부 일정조율 등 업무협의를 완료해 이달말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출국한다.

전달식에 참석한 여수발전본부 이동렬 본부장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가족에게 “이번 친정 나들이가 삶의 활력이 되기를 희망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친정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달했다. 가족을 대표한 마리벨라톡 여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3년 동안 고향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친정 가족들을 만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아름다운가게 나눔학교 수익금 전달식

전남도교육청에 2,563만원 기탁

전남도교육청과 (재)아름다운가게전남본부(이하 아름다운가게)가 최근 전남도교육청 5층 비즈니스실에서 나눔학교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아름다운가게전남본부는 2018년 나눔학교 수익금 2,563만원을 전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수익금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전남본부는 각급 학교와 연계해 자원 재활용 가치를 되새기는 실천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매장인 나눔학교는 올해 6개 매장에서 2만6,500여점의 물품을 기증받았으며, 1,730명이 이곳을 찾아 8,337점의

물품을 구입했다.

장석용 도교육감은 “배려와 참여의 나눔사업은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진다”면서 “나눔사업 과정에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김주연 (재)아름다운가게전남본부 본부장은 “나눔은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우리 가족,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남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나눔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 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도시철도, 사회적경제 전시관 개관

양동시장역 사회적기업 메카로 특화

광주도시철도 양동시장역이 양동시장과 연계, 사회적기업 메카로 특화 조성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0일 서구 양동시장역에 사회적협동조합상설과 함께 ‘사회적경제 전시관’을 개관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사회적경제 전시관’을 통해 양동시장역 지하 1층 대합실에 17㎡ 규모로 사회적경제 기본가치를 알리는 홍보판과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전시대를 설치, 시민들에게 상생과 나눔의 삶을 안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이미 입주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양동시장역이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교류가 펼쳐지는 사회적 가치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양동시장역에 공동이익과 나눔을 상징하는 ‘사회적경제 테마역’으로 새롭게 꾸미고자 한다”면서 “사회적경제 전시관이 입지자리 창출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솜씨품씨 전시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사회봉사단 후원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일 여수엑스포역 대합실에서 제3회 솜씨품씨 전시회를 개최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한지와 도예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사회봉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사회봉사단과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 참여자들은 5년전부터 인연을 맺고 공예작품 만들기, 생일잔치, 현장체험학습 등을 함께하고 있다.

코레일사회봉사단 김중훈씨는 “처음 장애인들을 접하고 중증장애인이란

편견에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불편한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게 됐다”며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고, 순수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자주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장애인종합복지관 천중근 관장은 “주간보호참여자들이 코레일 사회봉사단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광산구 범죄·자살·감염병 안전 1등급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3개 분야 광주전남 으뜸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안전지수’에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범죄·자살·감염병 분야 안전 1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 진단, 효과적인 안전대책 수립 등을 목표로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7개 분야를 측정·공표하고 있는 자료다.

이번 발표에서 광산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범죄 분야 안전지수는 1등급 받았다.

광산구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범죄발생 취약지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인안전탐배보관

합 운영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추진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아울러 관련 분야별로 유관기관과 ▲범죄예방 셉테드(CPTED) 구축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 관리 등도 병행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공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는 유지하고, 취약점은 정비해나가겠다”며 “안전광산 프로젝트를 더 정착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